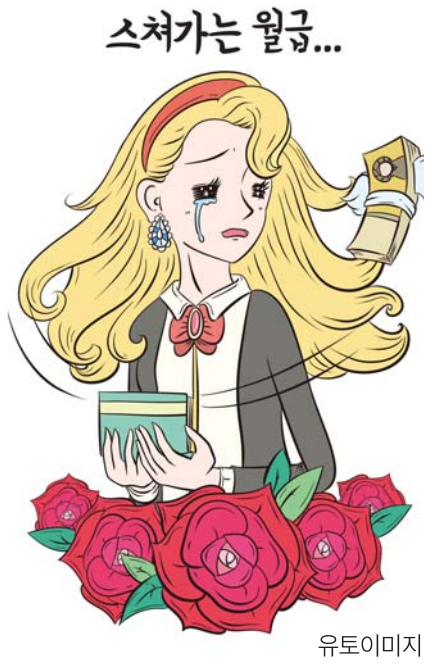
‘희망적금’ 보다 예치기간 더 긴 ‘청년도약’, 흥행은 글쎄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제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
부담 높아 대규모 중도해지 우려

2년간 매월 50만원 ‘희망적금’도
6개월 만에 가입자 10.5% 감소



유토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앞뒀지만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과 예치금이 높아 흥행 성공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만기가 5년으로 짧아졌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매월 70만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매월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44만원,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다.

‘청년도약’인 만큼 낮은 소득일수록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로 책정한 금리 역시 6.9%까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예치기간 5년은 너무 길어 대규모 중도해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출시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예치기간(2년)과 월납입액(50만원)에 부담을 느껴 해지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30만1000명(10.5%)이나 줄었다.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희망적금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데, 5년간 최대 월 70만원 상품을 가입하는 청년들이 많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비율은 높아 희망적금과 같은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실생활에 드는 비용이 높게 치솟은 상황에서 초장기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복현 “상생금융, 일회성 그쳐선 안돼”

금감원장, 금융소비자와 간담회
국민銀 상생금융 확대추진 격려
지속가능 형태로 자리잡길 기대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은행들의 상생금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와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의 상생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KB국민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방안 추진을 격려했다. 또 소상공인·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 상생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이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고객과의 상생노력이 지속되어야 은행의 장기 지속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지원방안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또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흘러가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예금, 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은행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 은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창용 한은총재, BIS 회의 참석차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한다. BIS는 전 세계 63개국 중앙은행을 회원사로 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현직 중앙은행 총재 교류의 장’으로도 불린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과 13일 세계경제회의와 전체총제회의,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총재는 또한 BIS 이사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귀국은 15일 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업銀-관광公, 일자리 창출 힘 모은다

‘워케이션’ 사업 추진 등 지원

IBK기업은행은 9일 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및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워케이션 사업 운영 ▲중기-구직자 일자리 매칭 지원 ▲우수 채용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스타트업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기업부담금 10만원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제도인 ‘워케이션’ 사업도 추진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아이원잡(i-ONE JOB)’과 한국관광공사 채용포털 ‘관광인’을 연계해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면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승용 기자

Sh수협은행, 여성역량 강화 위해 ‘WEPs’ 가입

조직 내 성평등 문화확산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제도화 앞장

강신숙 수협은행장(오른쪽)이 영업점 책임자 워크숍에서 여성 리더로 참여한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조직내 여성역량 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섰다.

Sh수협은행은 유엔 산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약 6600개 기업이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제공 ▲모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복지 보장 ▲여성인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강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개발 및 공급망, 마케팅 전략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와 양성평등 확보 정책 공조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 등 투명성 강화 등이다.

수협은행은 WEPs 가입에 따라 이같은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다양성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실질적 활동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아갈 방침이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기업문화를 제도화하고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은행-고고팩토리

알뜰폰 경쟁력 강화 합리적 요금제 출시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디지털 기반의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고고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손님에게 합리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정 통신사가 아닌 요금제 비교 플랫폼과 제휴함으로써 개인별 스마트폰 이용패턴에 따른 맞춤형 요금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통신사 할인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할인(휴대폰요금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월 2000원 할인) ▲하나카드 결제출금 할인(하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대금 인출실적이 있는 경우 월 1000원 할인)▲하나은행 첫 거래 추가 할인(월 2000원 할인) 등 첫 개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00원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